



❖ 한국도로공사 영주영업소
- 요금소 이명순 여사님

아스팔트를 녹여버릴 듯한 뜨거운 태양이 내려 쬐는 시간에도 열심히 적재불량 화물차량을 단속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. 모래를 실은 화물차량이 속 덮개 미 부착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합니다. 그때 화물차량을 계도하여 회차시키고 입구 부스로 향하는 이명순 근무자를 보면 참~ 커리어우먼의 프로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적재불량 화물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화물낙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, 고속도로 구조물 보호, 고속도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이명순 근무자를 진심으로 칭찬합니다. 항상 출근도 누구보다 일찍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빠짐없이 체크하고, 초번 입구 근무일 때는 영업소 광장 쓰레기를 줍습니다. 굶은 일도 술선수범~!! 언제나 웃는 얼굴로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이명순 근무자의 행동은 영주영업소를 찾는 고객들의 더위까지도 싹 가시게 할 정도입니다. 영주영업소 이명순 근무자를 진심으로 칭찬합니다~!!!!

- 영주영업소 사무장 조형수 -

당신은 성원의 자랑입니다! 

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..
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.
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
그 바람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
정말 어렵고, 훌륭한 일입니다
1등 기업 성원이 이명순 여사님을 응원합니다!

